

■ 헐기 위해 세우는 집

「이 친구들 손님대접에는 여자가 포함된다는데……」

「오늘 밤은 전통가옥에서 하루 묵는다니 혹시 알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회주의를 하루이틀한 나라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하겠어?」

「옛날에는 손님이 오면 마누라까지 동원해서 잠자리 시중을 들게 했는데 말야. 만약 준비가 돼 있다면 어떻게 하지?」

「회장한테 물어버리지 뭐」

「전통가옥이라야 둥그런 천막집을 말하는것 같은데 우리 일행 수대로 일곱개씩 준비할리는 없을테고……」

외국인 캠프로 향하는 차안에서 일행들이 고민(?)했던 핑크빛 야무진 꿈은 현지에 도착하고 나서야 한여름밤 초원의 환상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아니, 달콤한 꿈은 커녕 하늘이 환히 보이는 둥그런 천막집(몽골인에게는 대단히 실례의 소리일지 몰라도 우리들 눈에 보이는 것은 분명 천막집이었다)에 자그마한 침상을 -한국의 X세대 젊은이들라면 분명 발은 침상 밖으로 나와야 하는 - 4개씩 꾸며놓은 겔<sup>1)</sup>은 아무리 이국의 배가 본드들이라 하더라도 황당한 느낌을 지울

수 없게 만들고 있다. 게다가 산속의 밤 기온은 갑자기 내려가는듯 난로를 피워도 온기가 별로 전해지지 않는다. 난로를 끄고 상부의 넓은 환기구멍을 막으면 질식의 위험이 있다니 그럴수도 없고, 더욱이 자정 넘어서부터 오락가락하는 비는 난로위에 직접 떨어져서 콩 볶는 듯한 소리를 내면서 조용한 집(?) 내부를 공명시키고 있다.

몽골에는 스텝과 풀이 많고 경사가 완만한 산이 많기 때문에 일년내내 많은 가축을 사육할 수 있었다. 풀이나 물이 풍부한 산지에서는 먼거리까지 유목지를 옮길 필요가 없었지만 자연조건이 열악한 고비지대에서는 원거리 유목은 불가피했다. 몽골의 목축민은 아주 오래전부터 자주 먼거리

1) 몽골에서 겔(GER)이라고 부르는 이동식 주거는 러시아에서는 유르타(Yurta) 중국에서는 파오(包)라고 각각 달리 불리고 있다.

## 몽골건축을 찾아서(2)

In Research of the Mongolian Architecture

대초원의 실존, 몽골 전통주거의 허와 실

朴舒弘 / (주)희산종합건축사사무소  
by Park Suh-Hong



를 유목해야 할 필요성과 혹심한 기후조건에 의해서 그들 나름의 유목적 목축의 특징을 생활조건에 적응시켜 왔다.

승마를 위한 말의 이용, 수송가능한 조립식 주거의 개발, 가축에 의한 식량의 확보 등으로 광활한 중앙아시아의 공간을 그들의 활동영역으로 삼을 수 있었고, 승마용 말과 수레위의 주거는 먼곳으로의 이주와 원정, 부족과 민족간의 교류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어 민족이동의 메커니즘을 형성하게 된다.

고대(古代)에 있어 유목민의 농경민에 대한 침략과 그 과정에서 군사적 목적에 의해 생겨났던 도시들의 형성과 정에도 이러한 환경이 배경의 요소로 설명되고 있다.

도시와 주거는 세우기에 앞서 해체를 먼저 고려하게 되었고 농경민과는 달리 땅(地)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사람수가 증가하면 자연히 가축도 증가하기 마련이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영토의 확장은 필수적이었지만 유목민에게 있어서 가혹한 자연조건과 생활양식의 특수성은 자급자족을 어렵게 하였기 때문에 농경민과의 교역만이 생존을 위해서는 필수적이었다.

BC202년 그들 유목민은 중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후 단순히 교역만을 원하였을뿐 침입해서 획득한 영토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중국의 영토를 획득하긴 했으나 유목민은 아무도 그곳에서는 생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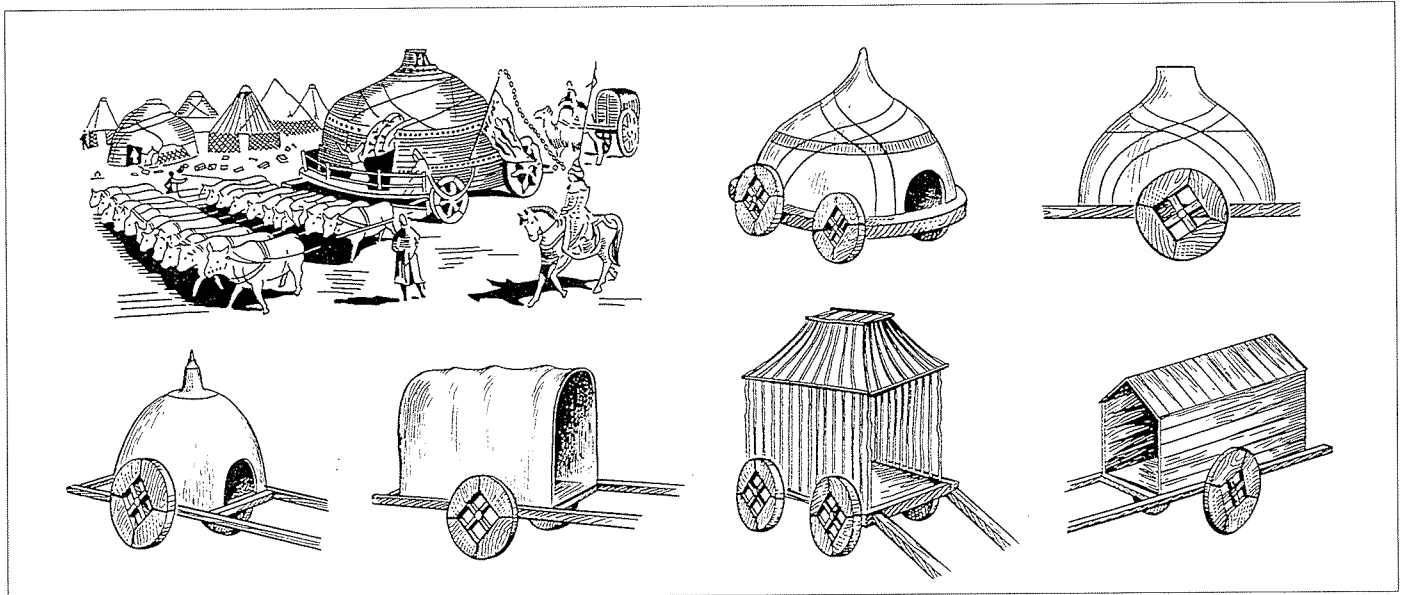
유목민은 여행을 떠날 때 예비로 말은 끌고 가지만 식량은 준비하지 않는다.

“내집은 곧 네집”이라는 손님환대의 불문율은 자기 자신도 거친 자연속에서 여행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과 외딴 유목민가를 방문하는 이방인에 대한 두려움이 합해져서 여행자에게는 식사를 제공하고 휴식과 안락함을 주며 때로는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유목생활 자체가 손님 환대라는 몽골 특유의 전통적 풍습을 낳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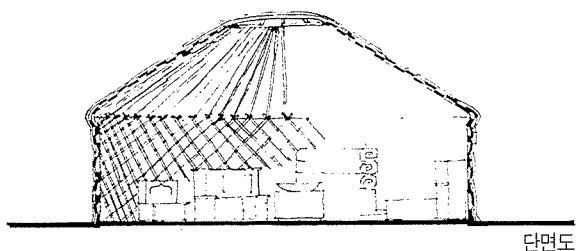
손님의 접대는 차로 시작해서 술(유제품)을 내고 고기를 준비하는 순서를 따른다. 이때 차의 색깔에서부터 술 그릇에 이르기까지 흰색일색의 배려는 최상의 성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되어있다.

유목민에게 있어 다산(多産) 선호 사상은 노동력과 함께 가계의 힘을 나타내면서 씨족의 계승자로서의 위치를 정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어린이, 특히 아들의 탄생은 매우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다. 아이가 탄생후 6,7일 후엔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자식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여러가지 예방조치로서 나타난다. 신생아 탄생후 1년 가량은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면서 입구에 새끼줄을 쳐놓고 들어가지 말라는 표시로 삼는다. 이때 활을 걸어 놓으면 남아, 붉은 형검을 매달아 놓으면 여아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최근까지 지켜지는 풍습중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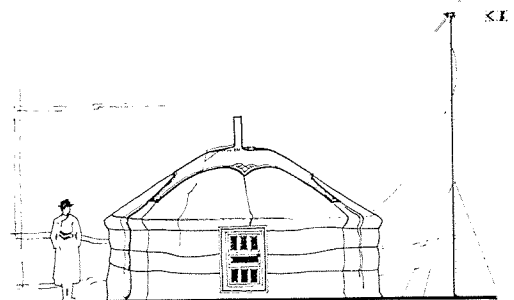
자식이 성인이 되면 부친은 어울리는 신부를 찾게된다. 신부의 부모는 신랑으로 부터 혼례금으로 가축을 받으면서 혼례는 이루어지는데 혼례 하루전날이 되면 신랑은 부친의 집 동쪽에 신흠집(겉)을 세우면서 신흠부부의 생활은 시작된다. 물론 현대에 와서는 결혼풍습이나 주거



수레위의 주거(가축이 끌 경우에는 반드시 소를 사용했다)



단면도



입면도

풍습이 많이 변했지만 의식의 기본을 이루는 정신만은 많은 부분이 유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보통 초야권(初夜權)이라 부르는 몽골라마승의 여성에 대한 횡포는 요즘은 사라져 버렸지만 이곳 몽골 여성들의 개방적인 성풍습과 함께 여행자들이 하여금 아련한 향수(?)를 자아내게 하는 것중의 하나이다. "남자 경험이 없는 여자는 사람으로서 가치가 없다."는 유목민들 사이의 오랜 가치관에 불을 지른 것이 신선 첫날밤의 여성은 신(神)에게 바쳐져야 한다는 교리를 만든 라마교였다.

13C에 이 나라에 정식으로 들어온 라마교는 청(淸)제국에 이르러선 국가에서 적극 장려 정책을 펴서 장남을 제외하곤 모든 몽골 전역의 남자는 모두 라마승이 되어야만 하였고 종교의 본질을 벗어나서 자행한 전횡은 공산혁명에 의해 철폐가 가해지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동안 이 나라 민족위에 군림하였다.

민가(겔)의 내부는 침대, 책장, 옷장, 찬장, 세면대, 작은탁자, 걸상등으로 짜여 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중앙에 위치하는 난로이다. 불(火)은 고대 씨족사회이래 존재의 본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히 추운지방에서는 집속의 화로는 생명의 근본이면서 가족의 번영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몽골국장(國章)에 도형화 되어있는  $\Delta$ 의 형상도 3가닥의 불꽃을 뜻하는것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화염을 나타낸다. 통상 난로에는 굴뚝이 붙어서 위쪽 찬장을 통해 밖으로 연결된다. 보통 가족 및 손님은 이 난

로를 중심으로 주변에 앉게 마련이다. 허리를 구부려야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 왼쪽에는 마구와 마유주를 담은 가죽부대가 놓여지며, 오른쪽에는 부엌용 취사도구가 위치하면서 주부의 공간이 된다. 서쪽은 손님의 공간이고 동쪽은 가장과 아이들 공간을 이루면서 엄격한 공간의 위계를 지키게끔 구성된다. 북쪽에는 상자가 놓여지고 그 위에 불상, 제사도구 등이 놓여지며 귀중품은 이 상자 안에 보관된다. 수렵용구는 가장의 가까이 보관되며 손님을 위해서는 융단이나 의자가 준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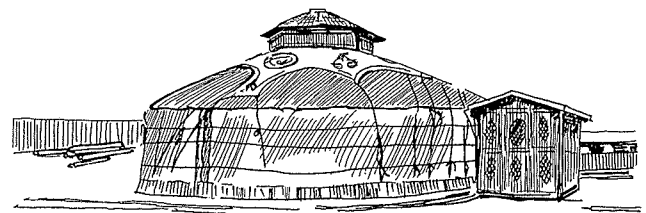
겔의 내·외부의 장식은 예전에는 그 주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부유한 가정은 크고 좋은 펠트로 덮여지고 여러가지 호화로운 장식과 문양으로 꾸며진 겔을 여럿 소유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서민의 겔은 내·외부 모두 검소하기 짝이 없는 단순구조로 되어있다. 겔의 입구를 장식하는 연꽃문양과 끝없는 실(系)을 나타내는 문양은 복(울지, 福)이라는 글씨체 문양과 함께 몽골의 가장 보편적인 문양으로서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문양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화라는 것이 자연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자연현상일 뿐이라는 생각과 함께 전통 겔에서의 하루밤은 독한 징기스칸 소주에 취해서 몽골건축사와 어깨동무를 하고 부르는 아리랑 가락에 묻혀서 깊어만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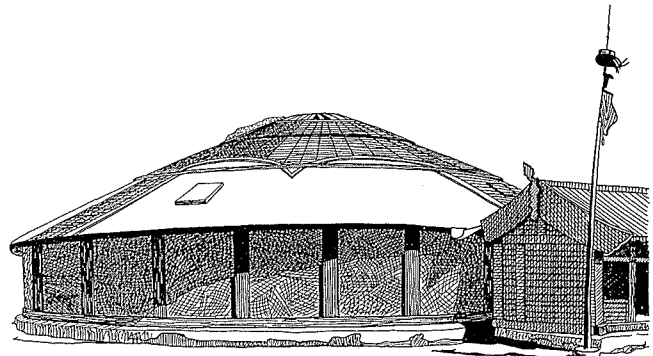
漠漠夏雲起 悄悄夜寒生(白樂天)

막막한 검은구름 여름하늘 뒤덮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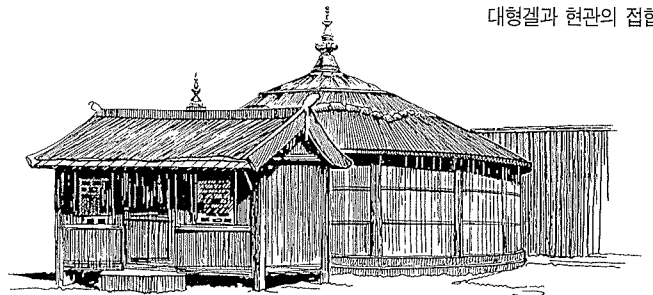
스잔한 어둔밤엔 한기만 스며드는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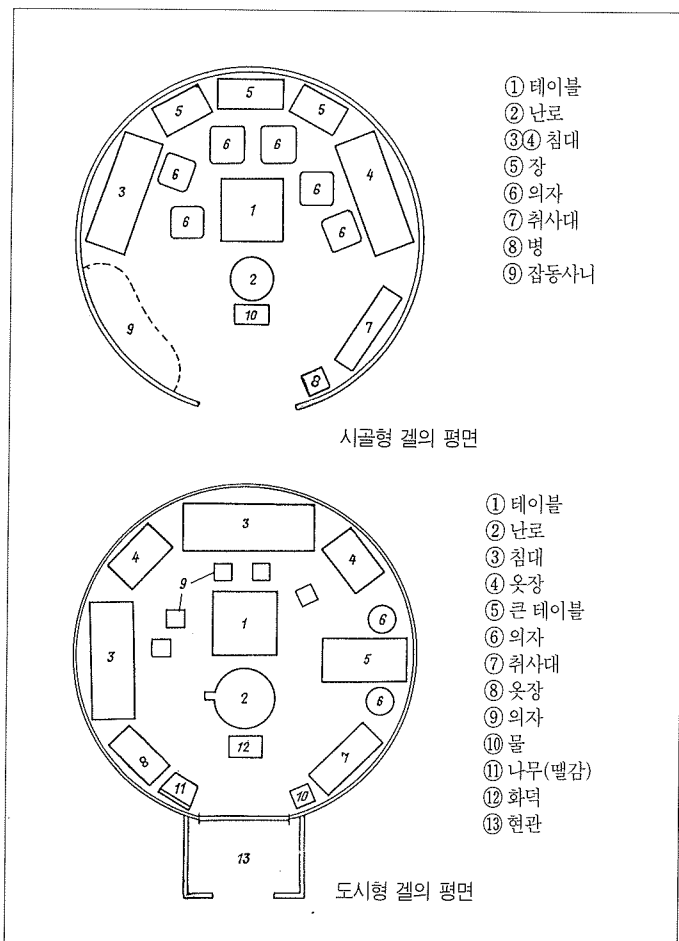
현관을 두는 겔의 형태



대형겔과 현관의 접합



현관을 둔 겔의 형태



■ 겐의 건축 및 구조

겐은 하루아침에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유목생활은 겐(집)을 세우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고 쉽게 갖고 다닐 수 있으며 조립과 해체가 용이한 주거공간을 필요로 했다. 또 남자들은 가축을 돌보는 일과 군사 행동에 투입 되었으므로 집을 세우는 일은 당연히 부녀자들의 몫이었다. 고대(古代)에는 수레위에 얹혀진 이동식 주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도 했으나 군사행동과 먼거리 이동의 필요성이 끝남과 동시에 이러한 주거는 점차 의미를 잃고 수레에서부터 분리되기 시작하였다.

오랜시간이 흐르면서 지상에 세워지는 겐은 철거하는데 한시간 조립하는데 두시간정도면 끝낼 수 있을 정도로 규격화 되어졌다. 겐의 건축은 수세기 동안 사용하면서 터득한 계수(係數)체계가 시스템화 되어 있어서 일정한 기술적 방식에 의해 행해진다. 가장 일반적인 4격자식 겐에는 내부의 기둥이 없다. 전체구조는 격자 주위에 연결되면서 문 양쪽에 고정 되어있는 띠로 지탱된다.

5격자식 이상의 겐에서는 내부에 독립기둥이 세워지는데 6~8격자식에서는 두개, 9~12격자식에서는 4개의 기둥이 세워진다. 기둥에 의해 구성되는 공간은 엄격한 어른들의 공간으로서 아이들은 그곳 출입을 제한 받는다. 또 그 상부의 천창(open)은 태양광선을 받아들이고 환기 조명의 기능외에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와 같은 역할을 한다.

겐의 배치는 출입문이 정남으로 향하게 놓여 있는데 이때 정오의 태양광선은 북측에 있는 상자 정중앙에 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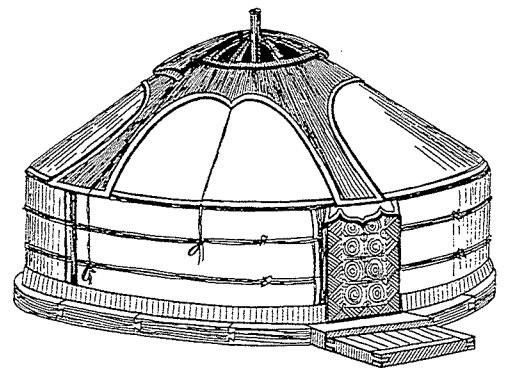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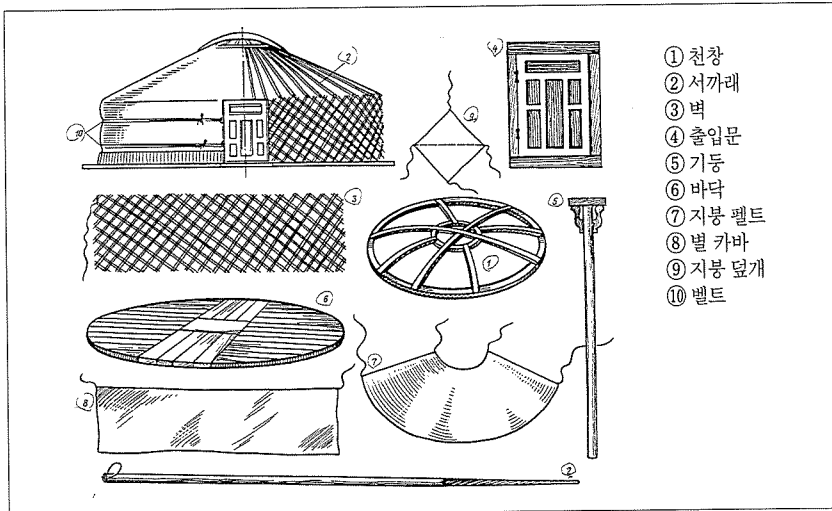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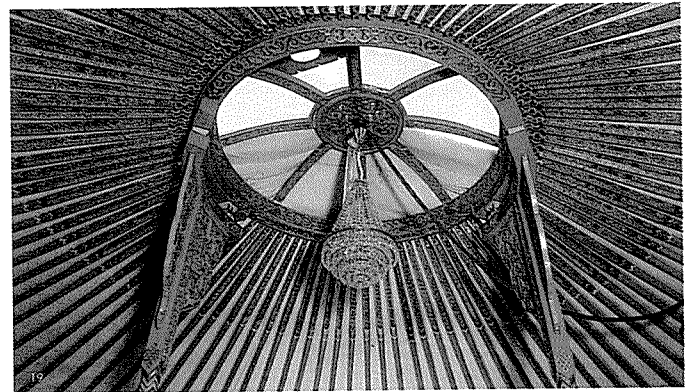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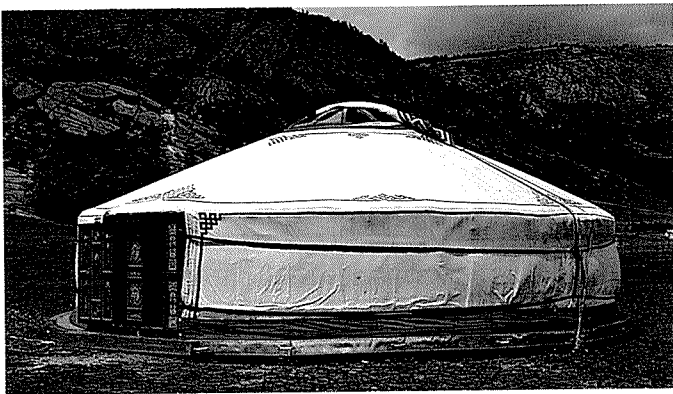
어진다.

〈겐의 격자 변화에 따른 크기〉

격자수(벽)	직 경	높 이	m <sup>3</sup>	m <sup>2</sup>
4	4,900	1,950	42.7	18.9
5	6,100	2,500	86.8	19.3
6	7,300	2,940	144.4	42.0
7	8,500	3,420	227.5	57.0
8	9,600	3,880	331.5	72.6
9	10,200	4,140	383.4	79.0
10	12,300	4,970	689.0	119.0
11	13,100	5,300	829.0	135.0
12	14,500	5,900	1,132.0	165.0

겐의 조립은 먼저 바닥과 골조를 설치하고 나무 부분을 펠트로 덮고 그후 가구를 넣는다. 그 다음 격자 모양의 벽(한)을 설치하는데 잡아늘여 서로 연결시키면서 말의 털로 짠 새끼줄로 고정시킨다. 문(출입)을 설치한 다음 벽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따로 묶고 그 끝을 문의 측면기둥에 설치된 고리에 동여맨다. 그리고는 끝으로 지붕이 씌워진다.

겨울에는 겐은 2중의 펠트로 덮이면서 최고 90°C에 이르는 온도차이를 극복하게 하며 여름철에는 아래쪽에 있는 펠트 한장이 열리게 되면서 통풍을 시키고 실내를 시원하게 한다. 실내에는 경우에 따라 마루를 깔기도 하는데 이것 역시 여름철 습기를 막으면서 실내통풍을 돕는 역할을 한다.



완성된 겐의 형태

겐의 부서별 명칭

「이곳 도시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여름만 되면 모두 집을 비워놓고는 여름 집이라고 부르는 교외지역의 작은 집에서 약 두달간을 삽니다.」

「집이 두채씩이라는 말인가?」

이곳 몽골대학 한국어과에 다니는 바야르후의 설명에 옆에 있던 이근창 위원이 나섰다.

「약 2평가량 되는 나무로된 집을 지어서 살지만 겔에서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는 시(市) 당국에서 매일 물차로 물을 공급해 주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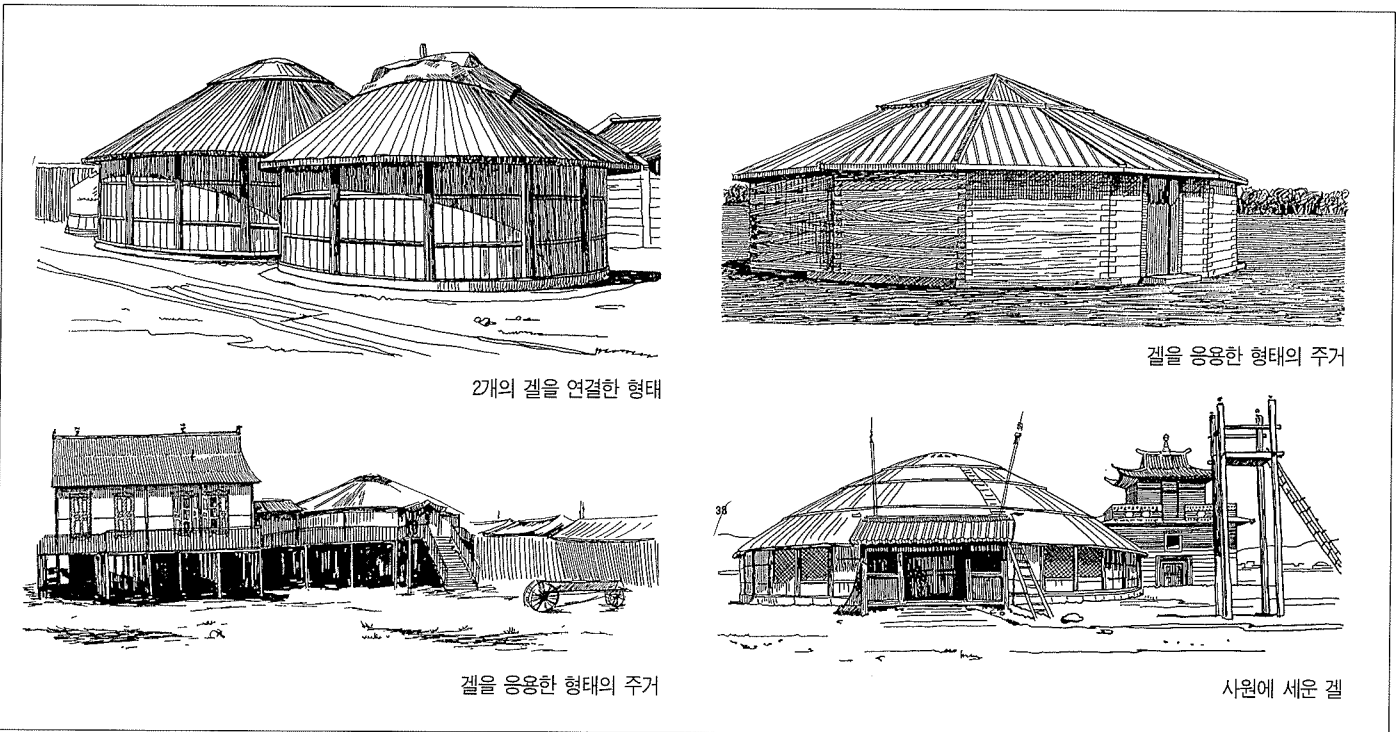
「왜? 직장은 어떻게?」

「국민들이 원해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빠스도 다닙니다. 그래서 모두 출퇴근을 하지요.」 교외로 이동하면서 눈에 띈 낮은 산자락에 놓여있는 장난감같은 집들을 말하는 모양인데 피서지 별장으로 보기에 너무 초라한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달리보면 생활이 여유있어 보이기도 하는 모습이다.

「옛날 생각이 나서 그런답니다. 물론 화장실이나 가구 집기등은 있을리 없지만 아이들은 풀밭에서 마냥 자유롭게 놀고, 어른들은 말이나 양같은 가축을 키우기도 하고…….」

그렇구나 지난날 유목민의 향수를 담을 수 있는 자극적인 생활풍습을 이런 방법으로 유지하면서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것이구나. 하기가 몽골 사람들의 둥근 형태의 겔에 대한 집착은 원(元)제국 시기의 궁궐(北京, 베이징, 상도)내에서나 사찰 내에까지 세웠던 겔의 전통으로 이어지면서 광활한 중원 대륙에 강력한 원(圓)의 모티브를 제공한것이 사실이다. 주거나 건축에서는 물론 가구나 복식에 이르기까지.

보이는 것이라곤 고비와 초원뿐인 이곳 사람들에게 유일한 안락함을 제공하였던 둥근형태의 겔 이주는 형태상의 강렬함이 현실이었다면 붉은 바람이 지나가고 서방의 미풍이 불어오더라도 이곳 몽골인들이 절감할 수 밖에 없는 비극적 실존(實存)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일까.



2개의 겔을 연결한 형태

겔을 응용한 형태의 주거

겔을 응용한 형태의 주거

사원에 세운 겔

